



중견기업,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 주도한다

- 중견+중소, 중견+대학 협업 연구개발(R&D) 등
'24년 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40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4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신(新)산업정책 2.0 전략」의 일환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대학·공공연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❶「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71억 원에서 금년 90.5억 원으로 27.4% 증가했다. ❷「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27억 원에서 금년 39억 원으로 44.1% 증가했다. ❸「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은 청년 석·박사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8억 원이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향후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초격차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오늘(2.15일)부터 시작한다.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은 1.29일 공고를 통해 현재 신규과제를 모집중이다.

이 세 개 사업의 모집 마감은 3월 15일이며, 관심있는 기업은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산업부(www.motie.go.kr)/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370)
	중견기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윤재웅 (044-203-4371)

구분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지원대상	중견*(주관)-중소기업(참여) 컨소시엄 * 중견기업 후보기업도 지원가능	지역대학*(주관)-중견기업 컨소시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초기 중견기업*(주관) * 3년평균 연매출 3천억원 미만
지원조건	-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 -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참여주체간 상생협약 체결 - 해당 지역 중견기업 2개사 이상 참여 - 지방비 매칭(국비의 20% 이상)	-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청년 석박사 또는 기술전문 경력인을 연구인력으로 활용
지원내용	- 탐색연구 : 사업기획 지원 - 상생 R&D : R&D 자금지원	- 중견기업 수요중심 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구축 -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R&D 기반 석박사 과정 운영 - 자체 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계	연구인력 인건비의 40% 이내 지원
과제당 지원규모*	- 탐색연구 : 3천만원(6개월) - 상생R&D : 39억원(3년)	42억원(5년)	- 청년 석박사 : 2,000만원/人 - 기술전문경력인 : 2,800만원/人 * 기업당 최대 2명, 3년간 지원
'24년 신규 과제수	- 탐색연구 : 5개 - 상생 R&D : 2개	2개	16명
'24년 예산	90.45억원	38.88억원	18억원
신규과제 공고기간	'24.2.15~3.15	'24.1.29~3.15	'24.2.15~3.15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